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한정호

홍보와 소통

MB 정부의 처음과 지금을 비교하여 가장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홍보의 강화이다. MB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가장 먼저 국정홍보처의 폐지를 단정적으로 밝혔고 새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은 홍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는 것을 꺼렸다. 장관들도 이 용어를 불경시했다. 그러나 현 정권도 집권 반년이 되기도 전부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홍보기획관(수석) 자리도 신설했다. 각 부처에서 다 내보냈던 계약직 홍보 전문가들을 다시 고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회의, 각 순시에서 국정 홍보를 강조하고 직접 독려하기도 한다.

서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친근한 대통령의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홍보라는 말 대신 '소통'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홍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하다. 여기에는 언론과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미디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선거와 대형 국책사업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촛불 집회와 같은 엄청난 여론의 소요를 경험한 후로는 더욱 그러했으리라. 곧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생각하면 홍보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왜 그렇게 홍보라는 말을 싫어했을까? 과거 대통령치고 정부 홍보를 마다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통령이 과거 건설회사에서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고 CEO를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건설회사 홍보는 오로지 중요 인사 로비와 언론막기에 전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엉터리 관행을 정부의 정책에서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홍보 혐오 이유는 노무현 전 정권의 지나친 정치 홍보에 대한 진절머리에서 왔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브랜드화하고 기획과 홍보를 합쳐 기획홍보실을 만들고 보수 언론과 사생결단하는 홍위병식 홍보에 혐오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극단에 대한 극단적 반대, 그리고 극단적 선회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핵심적인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정부의 홍보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 4가지의 홍보는 모두 잘못된 홍보이다. 첫째, 노 전 대통령이 행한 이념 투쟁 혹은 선전성 홍보. 둘째,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경험하고 싫어한 로비와 언론방어식 홍보. 셋째, 정책만 좋으면 포장은 필요 없다는 지나친 실용주의사고 홍보. 넷째, 뚜렷한 원칙과 소신 없이 소통을 강조하는 무 철학 홍보. 이 모두 홍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홍보는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알리고,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언론을 이용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라는 고정된 인식을 가진 결과이다.

선진국의 홍보는 이미 대중설득과 이미지 만들기를 넘어서서 갈등의 해결과 다양한 공중들과 장기적 관계의 유지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선진 민주 홍보는 다양한 공중(public)들이 서로 전혀 다른 생각과 이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그 중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보 책임자의 역할을 '기술적인 설득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갈등의 조절자'로 규정할 것인가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 물론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언론에 보도하고 정책의 유리한 면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인 홍보의 노력이다. 그러나 홍보의 궁극적 목표는 갈등조절에 있다. 갈등조절은 남의 다른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하면서도 끈질기게 윈-윈(win-win)이 되도록 노력하는 '협상가적 기질'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로섬 게임(zero-sum)의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를 패자로 만들고 자신은 승자가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21세기 정보지식사회의 여론 싸움이다.

앞으로 더 많은 홍보 전문가들이 정부에 영입되고 홍보의 노력이 강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하다. 국책사업이 더 가속화되고 여론장에서의 대결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을 선전 전문가로 교육시키지 말고 인내를 가진 갈등의 조절자로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소통과 공감은 아름다운 용어이나 행동철학과 지침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존치키로 한 신문고시 엄격히 집행해야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신문고시'가 존폐 논란 끝에 유지로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고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신문고시를 존치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일부 중앙지의 과도한 무가지 배포와 경품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한 상황에서 과열경쟁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문고시의 존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시장의 과열과 독과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혼탁하다. '자전거 일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경품 제공은 일반화됐다. 최근엔 길거리에서 아예 백화점 상품권을 흔들며 내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상품권 대신 현금을 주고 여기에다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무료구독으로 독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신문시장의 혼탁은 신문고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MB 정부 들어 공정위의 단속은 유명무실하다. 실제로 MB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과 올해 상반기 신문고시 위반 관련 신고건수는 770건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과징금 규모는 2007년 8억9천600만 원에서 지난해 2천300만 원, 올해 상반기 210만 원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다양한 신문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전제가 된다. 따라서 자본에 의한 여론의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정부는 신문고시를 존치하는데 그치지 말고 엄격히 집행해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고 지역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알바' 청소년 임금착취 방치할 건가

시간제 근무인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본보가 광주지방노동청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제는 시급 4천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최저임금제가 지켜지고 있는 아르바이트 현장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일수록 심하다. 대졸 비정규직 '88만원 세대'에 빗대 청소년 알바들은 '44만원 세대'로 불린다. 일부 청소년들은 야간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당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돼 있다.

문제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이들 알바 청소년들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불경기와 취업난 속에 대학생들은 물론 고등학생들까지 아르바이트에 나서면서 일자리는 한정된 반면 알바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매주 청소년 근로조건과 관련한 문의가 3~4건에 불과하다. 법적인 처우를 받지 못해도 권리를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알바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이들이 우리 미래 주역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가정과 학교를 떠나 일터를 처음 경험하면서부터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기 십상이다.

노동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 청소년 노동권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부당 노동행위를 접수받아 처리할 '청소년 노동상담센터'의 개설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현정은의 배역

서울 워커힐 호텔로 수영하러 간 초등학교 2학년 소녀가 있었다. 마침 거기서 영화를 찍던 김수용 감독 눈에 띄었다. 김 감독은 영화 '새엄마'의 주연 배우 김지미의 어린 시절을 맡기고 싶었다.

"너 참 예쁘구나. 영화 한 번 찍어 보지 않겠니?" 소녀는 무작정 도망쳤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말에 그냥 겁이 났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지난 10일, 소녀 현정은은 세계 유수 언론사의 카메라 세례를 받는다. 현대그룹 회장의 신분으로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방북 길에 오르면서다.

그 사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사연이 있었다. 최고 기업가인 남편의 자살, 기업승계, 믿었던 숙부의 공격 등이 꼬리를 물었다. 그때마다 '과감하고도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넘겼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속 배짱이 있는 줄 나도 몰랐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주부였던 그가 '기업인'으로 자리매김한 데는 집안 내력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조부는 영암출신 만석꾼 현준호다. 현준호는 일제 강점기에 호남은행을 창립해 일제의 자본수탈에 대항했고, 전남의대(전남대의 모태)의 전신인 '광주의전' 설립에 거액을 보탰다. 일제말기 친일 행적이 논란이긴 하나, 근현대 호남의 대표적 기업인임은 틀림없다.

외가도 재벌가다. 외조부가 신한제분과 전남방직을 창업한 김용주다. 결혼 이후 평범한 주부로 지냈다고 하지만, 뼛속까지 스며있는 기업가의 DNA는 숨길 수 없었던 셈이다.

그런 그가 벼랑에 몰려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현대아산 직원이 북에 장기 억류 중이다. 그룹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MB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도 악화일로다.

그의 평양행에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현 회장이 주어진 배역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현대그룹은 물론, 남북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수관

사랑, 감사, 그리고 기쁨

지난 2008년 1월 3일, 경기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했던 최요삼 선수가 세상을 떠났다. 그때의 안타까움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복싱 선수로서 그가 걸어온 길은 외롭고 험난했지만 떠나는 길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최 선수의 가족은 생전에 고인이 밝혔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했다.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고 간 그의 장기는 사람들에게 새 인생을 선물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장기 기증은 그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프로복서로 국위를 선양하고 6명의 환자에게 자신의 간, 심장, 각막 등 장기를 기증해 사회의 귀감이 된 최 선수에게 체육훈장 백마장을 수여했다. 그는 복싱 선수로서 심한 생활고와 사람들의 무관심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죽어서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복싱에 대한 최 선수의 열정과 장기 기증을 실천한 아름다운 마음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생활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 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듯하다. 본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활동이 아니라 학교, 치과, 지역 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의 번영을 동일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한다.

최요삼 선수를 떠올리며 일반인 보다 조금 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치과 의사로서 '좋은 일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는다' 신념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등 3가지 덕목 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되기 때문이다. 이중 봉사의 기쁨은 더욱 의미가 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해도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조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동료들과 휴가를 이용해 의료봉사를 하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 진료보다는 봉사의 횟수와 방법을 늘리는 고민을 하고 싶다.

나는 3가지에 감사한다. 우선 치과의사와 교수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둘째, 봉사 단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감사하고 셋째, 남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을 가짐에 대한 감사이다.

이 같은 감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다.

지금은 어느 시기 보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어려운 이들에게 꾸준히 봉사하고, 작은 정성이나마 기부하는 이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기탁하는 것, 장기 기증을 서약하는 것만이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들을 보살피는 마음과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치과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기 고

문인

스포츠와 위기대응의 공통점

스포츠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류의 최대 문화제전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세계 은반의 여왕이 된 김연아 선수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기량을 뽐내고 있는 박지성 선수는 지독한 연습벌레였다고 한다. 세계적 스타가 된 선수의 비결은 바로 연습과 훈련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월드스타로 자란 선수들의 이야기에서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 생활과 직결된 재난발생의 양상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하며 거대화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뿐이다. 재해, 재난 등 위기상황과 갑작스런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도 을지연습이 실시된다. 전국의 행정기관과 중점관리지정업체 등이 참가해 전시대비기능과 함께 평시재난안전기능이 연계된 국가위기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훈련이다.

광주시도 지난 7월 '2009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준비보고회를 시작으로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기동훈련과 통신망 전환훈련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훈련 상황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연습에서는 테러대비 긴급채혈과 비상급수 등 실제훈련을 강화하고 시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안보강연회와 사진전시회, 비상대비 체험교육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훈련도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거진항 선적 오징어 채낚기어선인 연안호 예인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실제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는 자연재해 대비도 필요하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하지만 우리가 대비하기에 따라서 그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일본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지만, 재난대비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 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가동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긴급사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무원과 시민들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은 어디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른다. 재난이 공이라면 선수는 우리 모두이다. 수백, 수천 번 같은 동작을 되풀이해가며 훈련하는 선수들처럼 우리 모두는 안전에 대한 프로선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2009 을지연습이 전시대비 기능에 대비한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동시에 각종 재난발생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재난이 없는 '안전한 일등도시, 광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해외 가는 학생들, 영어보다 에티켓 먼저 배워야

나는 지난주 회사 출장 일로 호주에 갔을 때 일이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날 아침식사를 하러 내려갔다. 테이블에 앉으려는 순간 반가운 한국말이 들려 쳐다봤더니 어학 캠프를 온 듯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있어 반갑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 반가운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학생들은 조용하게 식사를 해야 할 호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소란스럽게 떠들었다. 조용하던 식당이 갑자기 소란해졌고 음식을 잔뜩 가져 와서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남기고 가기도 일쑤였다. 접시 위에 음식들이 많으니 종업원이 치워가는데 무척 애먹는 모습이 역력했고, 그곳에 온 외국인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망설이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기에 무척 민망했다. 가이드가 학생들더러 "조용히 식사하고, 주변 외국인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게 행동해라"고 알려주는 말까지 들렸는데 학생들은 관심조차 없는 듯 그저 아무렇게나 해놓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 학생들이 해외로 어학캠프든 어디든 나가기 전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현지에서의 식사나 공공 예절 같은 기본적인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먼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기철·광주시 서구 농성동

영화관 좌석 위치 따라 관람료 차등 적용 했으면

최근에 영화를 보러갔다가 늦게 도착해서 하는 수 없이 앞자리에 앉게 됐다. 하지만, 스크린 바로 앞에서 다섯째 줄 정도까지는 화면에 너무 가까워 영화를 관람하기가 참 불편했다. 물론 극장에 늦게 간 나에게 책임이 있지만 고개를 치켜들고 2시간 가까이 영화를 보려니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영화 관람표가 좌석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관객이 많은 경우 앞에 앉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땐 관람 자체가 아주 큰 고통이다. 일부 극장에서는 먼저 온 고객에게 좌석 선택권을 주지만 대개는 입장권에 따라 정해진 좌석에 앉는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가면 로열석과 일반석의 요금 차이가 크다. 좌석 위치에 따라 관람하는 즐거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입장료를 내고도 단지 운이 나빠서 불편한 자리에 앉게 된다면 좀 억울하기도 하다. 그러니 영화관도 좌석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해줄 수는 없을까.

▲이현미·광주시 남구 백운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